

KDI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회복 지체”

4월 경제동향...“반도체 올라 투자 긍정 신호”

“유가·운송 등 세계 지정학적 위험 요인 상존”

최근 우리 경제가 고금리 여파로 인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경기 부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는 부진하다고 해석했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

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전월(12.5%)에 이어 9.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IT를 제외한 품목(29%→22%)은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78.9%→44.8%)를 중심으로 IT 품목(57.0%→38.9%)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대(對)미국 수출(17.0%→19.1%)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4.8%→7.1%)은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서서히 부진을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수입(-13.1%→-12.3%)은 에너지자원(원유·석유제품·가스·석탄)의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42억8000만 달러)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월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둔화했으나 광공업생산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며 부진이 완화됐다.

서비스업생산(4.5%→1.2%)은 숙박 및 음식점업(-4.5%), 도소매업(-3.7%)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12.9%→4.8%)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2.5일→-1.5일)에도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되면서 반도체(65.3%)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광공업생산은 자동차(-11.9%), 전기장비(-17.9%)를 중심으로 4.8% 감소했으며 1~2월 평균으로도 1.5%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

제조업은 생산과 출하 회복세가 유지되고 가동률도 상승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각각 3.4%, 2.6% 증가했으며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 111.5%에서 110.1%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평균가동률(72.1%→74.6%)도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올랐다.

내수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기 여건이 기업심리에도 반영되면서 제조업 업황전망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내수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가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소비가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된 점을 꼽았다.

상품소비는 설 명절과 밀접한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감소하며 부진했고 서비스소비도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9)보다 낮은 100.7을 기록했다.

2월 설비투자(3.8%→-0.3%)는 낮은 증가세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긍정적 신호가 일부 나타났다.

선행지표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지만 2월 특수산

업용기기는 전월(13.5%)에 이어 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경기 개선에 따라 반도체와 밀접한 설비투자는 일부 개선됐다.

2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의 급증을 야기했던 요인이 다소 조정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며 낮은 증가율(18.2%→0.5%)을 기록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은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하며 향후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2월 취업자 수는 건설업 둔화에 따라 전월(38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32만9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5~64세 계절조정 고용률이 체제된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고용 여건의 조정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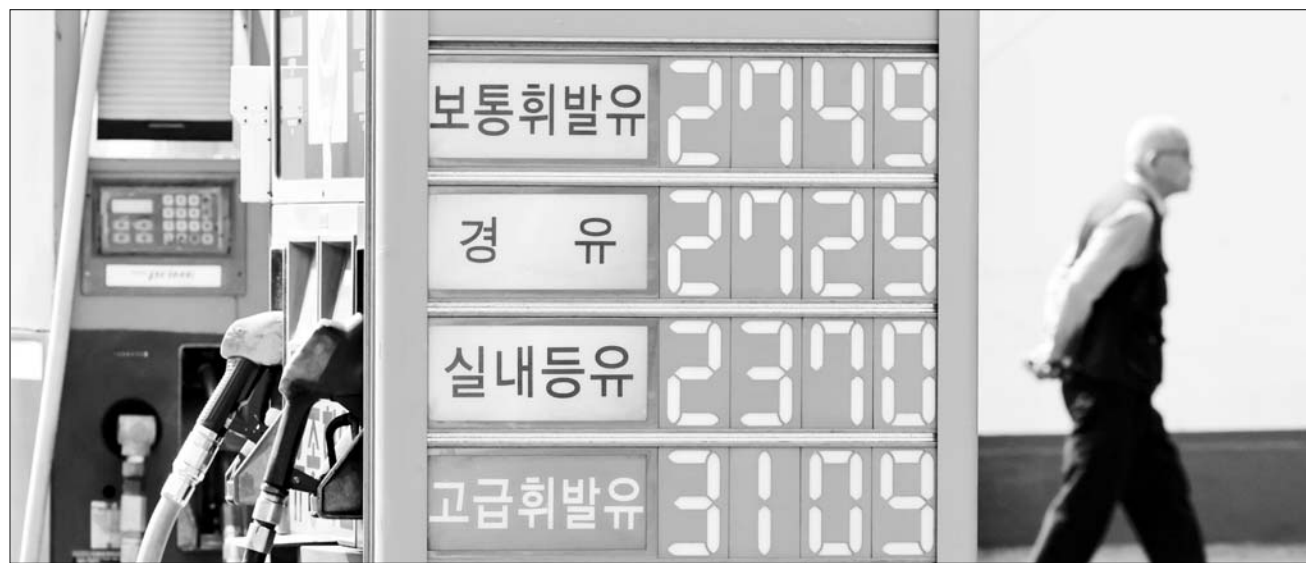
3월 소비자물가는 수요 부진에도 공급 측 상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서비스물가 상승폭(2.5%→2.3%)이 축소되면서 근원물가 상승세(2.5%→2.4%)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뉴시스

광양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광양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대책(2023년 12월 27일) 발표 및 '2024 산업안전대진단' 시행(2024년 1월 31일)에 따라 지난 3일 오후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관내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강민수 센터장으로부터 '2024년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의식 개선 △위험성평가 안내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상중 부장으로 부터 '사업주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광양=조순의 기자



기름값 2주 연속 상승, 휘발유·경유 동반 상승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뉴시스

광양만권경제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행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내달 조합회의에 승인안 제출 예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조합회의에서 선임한 조합위원장인 임형석 도의원, 강대선 전직 공무원, 양호석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등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

행되었는지 등을 검사했다.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들은 광양만권경제청의 주요 사업구역인 경도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장 및 황금산단을 방문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진척도 및 문제점들을 점검했으며, 현장직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임형석 결산대표위원은 “이번 결

산검사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 광양경제청 재정 운영 및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했으며, 결산검사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에 반영하여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청은 5월 말에 예정된 조합회의에 결산 검사결과서를 첨부해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의 기자

5대은행 예적금 한 달 만에 15조 빠져

예적금 ‘썰물’...예금금리 낮아진 매력에 자산시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자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반면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3.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력을 잃고 있어서다. 향후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예금 금리 하락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한 달 사이 15조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873조376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8740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31조372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478억원 줄었다. 한 달 만에 정기 예적금에서 14조 7218억원이 빠져나갔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오기 전에 ‘떡다’를 타려는 ‘에테크족’이 몰

렸던 2월과는 달랐던 모습이다. 2월에는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이 2조 25조원이 쏟아졌다.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은 지난달에만 33조원 가량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47조8882억원으로 전월보다 33조6226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전월에도 23조원 이상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자산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투자처를 고민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취급된다. 만기를 기다려야 하는 예적금과 달리 적당한 투자처를 찾으면 즉각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서다.

비트코인 비तर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주식 시장이 들쭉이면서 자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묶어두기보다는 새 투자처를 찾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향후 5년 ‘38조 원’ 투자

미래차 15조...자율주행 등 SW·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기아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8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기존 5개년(2023~2027년) 계획 대비 5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15조원이 미래차 사업에 투입된다.

미래차 투자 재원은 전동화 65%, 목적기반모빌리티(PBV) 19%, 소프트웨어중심차(SDV) 8%, 미래항공모빌리티(AAM)·로보틱스 5%, 기타 3% 비율로 투자한다. 이를 통해 순수전기차(EV) 판매 확대를 비롯해 ▲배터리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등의 경쟁력을 꾀한다.

기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CEO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0년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밝혔다.

순수전기차(EV) 수요 성장세 둔화에 하이브리드(HEV) 모델 라인업 강화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EV 판매량도 끌어올린다. EV 판매 목표는 ▲2024년 30만 7000대 ▲2027년 114만 7000대 ▲2030년 160만대다.

EV 대중화 모델을 투입해 전기차 구매 허들을 낮추고, 2025년 PV5, 2027년 PV7 등 PBV 모델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 까지 총 15개 차종의 EV 풀 라인업

를 구축한다. 배터리 성능 향상과 원가 경쟁력 확보도 이어간다. 기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를 개선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지속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대중화 모델의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에 482기가 설치된 이피트(E-Pit)를 2030년에는 5400기 이상으로 늘린다. 북미에서는 2030년까지 아이오나를 통해 3만기를, 유럽은 아이오나와 테슬라의 제후로 1만7000기 이상을 구축한다.

특히 기아는 향후 5G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연비 주행, 무전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 고도화 등 자율주행 관련 안전성을 지속 향상시킨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차장 고도화를 통한 커넥티비티 기반의 SDV를 정립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화한다. 고속도로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도심 내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밀센서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속 개발한다.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개관

일반분양 2364가구...전용면적 84~233㎡ 조성

16일 특공·17일 1순위...당첨자 발표 24~26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이 5일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를 구성되

며, 이 중 23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면적 114㎡~233㎡) ▲2-1BL(915가구, 전용면적 121㎡~166㎡) ▲2-2BL(928가구, 전용면적 84㎡~166㎡)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고품격 상품성

을 갖춘 것은 물론 도심 속에 공원을 품고 있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 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프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도 구축된다. 이 중 아파트 부지는 19만5457㎡ 규모로 약 8%에 해당한다.

또 단지 인근에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무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화정남초, 화계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통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

가구 내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위주로 단지를 배치, 일조권과 가구 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넓은 중간거리를 확보했다. 또 28층에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권영만 기자